

국가 권력이 지역으로 흐르려면



기 고
유 신 육
국회의원 보좌관

길어낸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구현하는 '역량'이 만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희망적으로도 이러한 혁신의 DNA가 최근 청년 정치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 비판하며 시(市)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복잡한 재정 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시민들이 예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실시간 공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초구의 한 청년 지방의원은 기존 종량 제봉투 디자인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설명 텃에 어떤 품목이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지원 재활용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자이너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정보를 시각화하고 재배치해 쓰레기봉투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러한 쓰레기봉투는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대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일일이 주민들에게 공개하느냐는 회의론, 지금껏 이어

져온 쓰레기봉투 디자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역 현장에서 길어온 문제의식과 이를 풀어낸 창의적 해법은 결국 주민의 삶을 바꿔놓았다.

결국 정치가 국민과 가까워지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무게 중심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로 이양되는 과정에 '민주화'라는 극적인 동인이 필요했듯이,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흘려보내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운동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희망을 우리 세대 정치인들의 역동성에서 찾는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이 된 오늘날,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 능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모아내는 통로가 된다.

선배 세대가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렸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중앙집중 권력을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일이다. 다져진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 세대의 치열한 고민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권력은 비로소 지역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상으로 흘러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로 갑니다' 저자

정치권의 목표 '국민 통합'...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기자 수첩
박 태 흥
(정치부)

정부가 출범 반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자체가 난센스였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구을 당협위원장장을 맡은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장을 맡고 있었으면 이재명 정부에서 스카웃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게 맞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그 후 관련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십년간 봄 담은 정당을 배신한 것이고 이는 이 대통령이 기대한 '통합' 효과보다 '갈등'의 소지를 키웠음이 다분해 보인다.

이 후보자의 인턴 폭언 의혹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이 후보자의 장남은 친할아버지의 장관 이력으로 연세대 입시 자격이 주어진 것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시가(추정) 100억원 상당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 의혹은 장남이 위장 미혼을 했다는 의심까지 터져 나오며 부적격 논란을 스스로 일으켰다.

혹자는 한국인이 가장 예민해 하는 '갑질·입시·부동산' 의혹이 한꺼번에 터졌으니 이 대통령으로서도 이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인선을 통한 국민 통합은 지도자의 결단만 갖고는 불가능하단 진리가 자명해졌다. 국민들은 인선으로 보여주는 통합보다 민생·경제를 들려싼 불안감을 정책을 통해 해소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효능감 있는 정치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그 후에 '국민 통합'은 따라올 것이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7일 (음 1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도움을 받으나 시비도 발생. 48년생 아집보다는 소탈하게 순리에 따르도록.
60년생 언제나 불평은 주변 발전에 저해가 된다. 72년생 소소한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다 손실만 크다. 84년생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 실망은 금물.



37년생 꾸미지 않은 소탈함으로 후배의 존경을 받음. 49년생 노후대비는 절야이자 수전노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61년생 파란색 옷으로 기분전환을. 73년생 외출할 생각으로 지출이 과다. 85년생 혈압 당뇨 질환을 조사해 보시길.



38년생 은행 대출도 결국에는 빚이다. 50년생 서두르는 가운데 사고가 염려. 62년생 만사는 초기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해둬야. 74년생 모난 돌이 뒤늦게 정 맞는다. 86년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듯.



39년생 명품은 행동부터 바로잡으면 그것이 승격. 51년생 부모님이 계신 것은 하늘의 은총이니 효도하라. 63년생 중이 정이 싫으면 떠나라. 75년생 가정에 충실한 만큼 사고는 멀어진다. 87년생 서두르는 가운데 물건을 잃어버린다.



40년생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꾸준하게 도전해야. 52년생 남쪽에서 재물을 얻는다. 64년생 선배를 왕따하는 짓은 그만하고 배울 것은 배워라. 76년생 산과 들에 피는 꽃을 보니 옛 생각이 난다. 88년생 인덕은 내가 먼저 베풀라.



41년생 친구의 애경사는 계산하기보다 친석하라. 53년생 남들이 이루지 못 한 일을 잘해나가니 보람. 65년생 음주에 유의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77년생 종일 팔자타령 만 하지 말고. 89년생 나쁜 인연이라 생각되면 애초에 만들지 말자.



42년생 운세가 악하니 새로운 일은 만들지 마라. 54년생 주변과 상부상조해야 덕이 생긴다. 66년생 평소 노력으로 승진도 순조롭다. 78년생 믿었던 지인이나 등을 돌리지 만 내탓. 90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라도 양보할 맨 양보해야 할 터.



4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먼자는 격. 55년생 언제나 인연 범은 출날도 생각해야 한다. 67년생 기회만사성이라 했지만, 직장에도 더 충실히. 79년생 저녁 지나만 나는 이성은 조심해야 할 것. 91년생 정치나 종교에는 관여하지 말 것.



44년생 평소 돈에 지독함으로 고립무원이다. 56년생 협력자에게 능력 선에서 자금 지원도 해줘야. 68년생 이득은 적지만 결과는 좋다. 80년생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세상 이차. 92년생 오후에 기다리던 결과가 와졌다.



45년생 실수는 따르나 걱정은 해소. 57년생 금전거래는 뒤로 주고 말로 받으니 기쁨이다. 69년생 좋은 운세를 얻으려면 청소와 문화생활로 주변을 건강하게. 8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93년생 재물성과가 늦어도 힘내야.



46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행운이. 58년생 집안 문제는 다수의 결을 찾아서 하자. 70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82년생 어려운 일이 풀려가니 종도 포기는 하지 말도록. 94년생 지하철 도보 때에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피해서 다니자.



47년생 아름답지 않은 인연은 멀리하도록. 59년생 배울 것이 없어도 경청하라. 71년생 직장 내에 문제가 복잡해도 성실히 본인 일에 열심히. 83년생 사고의 대비는 언제나 유혹을 뿌리치는 것. 95년생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베풀자.

김상회의四季



좋은 관상

"사주보다는 관상(觀相), 관상보다는 심상(心相)"이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관상과 심상의 관계는 생각보다도 더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 관상은 마음의 표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화가 난 표정은 감출 수가 없다. 열이 올라 낮은 빛은 붉어지고 눈초리는 치켜 올라간다. 말투나 목소리도 날카롭고 커진다. 이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면 얼굴에 표정이 새겨지고 말 습관 역시 날이 선다.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니 신체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이라고 이러한 마음의 질이 계속되면 물질인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에 새겨진 마음의 궤적을 살피는 것이 관상일진대, 그 관상으로 향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경험적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관상학은 행동 경험학이다. 인간의 신체나 얼굴의 형상과 빛깔 등으로 운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정 확률 이상의 예측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마가 훈하고 밝게 빛나는 사람들은 관록운이 좋다. 나라의 관록을 입고 사는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높은 직급의 임원들을 보면 대부분 훈한 이마의 소유자들이 많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절대 이마를 가리지 말라고 한다. 하늘의 운기를 우선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몸에서는 이마이기에 관록궁이라 부른다. 취직을 위한 면접이나 시험면접처럼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이마를 드러내야 한다. 사주와 관상의 관계도 보면 업의 코드이다. 전생에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사주의 격과 명조가 원만하고 선업의 크기에 비례해 복도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다. 크게 보면 사주팔자와 관상 그리고 심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운명을 이해하는 코드라고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종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 721-9851, 9826 / 02) 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 5월 28일 제5841호 | |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서

| | | | | | | | | |
|---|---|---|---|---|---|---|---|---|
| 5 | 2 | 1 | 6 | 3 | 9 | 8 | 4 | 7 |
| 8 | 7 | 3 | 5 | 9 | 7 | 1 | 3 | 2 |
| 6 | 9 | 4 | 8 | 2 | 9 | 4 | 5 | 7 |
| 3 | 1 | 8 | 2 | 6 | 9 | 1 | 3 | 5 |
| 2 | 4 | 5 | 7 | 8 | 6 | 9 | 4 | 2 |
| 7 | 6 | 9 | 2 | 1 | 5 | 8 | 3 | 4 |
| 4 | 3 | 2 | 9 | 1 | 7 | 6 | 5 | 8 |
| 1 | 5 | 7 | 3 | 6 | 8 | 2 | 9 | 4 |
| 9 | 8 | 6 | 4 | 2 | 5 | 7 | 3 | 1 |

